

미군정 초기 미국 연수를 다녀온 한국인 의사 10인의 초기 한국보건행정에서의 역할

신영전¹ · 서제희²

¹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²충남대학교병원 권역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센터

The Role of 10 Medical Doctors Trained in the US und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n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Young-Jeon Shin¹, Jae Hee Seo²

¹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²Rheumatoid and Degenerative Arthritis Cente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Daejeon, Korea

On September 24th of 1945, the existing Health Department under the Bureau of Economy and Trade was abolished complying with the Article 1 of the Ordinance of US military occupation "Establishment of Health Bureau."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Health Bureau, one of its first priorities was to select South Korean medical doctors and send them away to the US for training "in order to educate the talents necessary for the Health Bureau to address the public hygiene and health issues of Korea." Under the sponsorship of Rockefeller Foundation, the US Military Government sent 10 Korean medical doctors to three universities. After they came back to Korea from the training in the US, they played significant roles in building and managing the Korean health and medical system und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as well as during the post-war of Korea and in the 1960s-1970s. Furthermore, they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expanding and transplanting the 'American-style' health and medical system in health administration, health research and medical education in Korea. On the one hand, this means the limitation and elimination of an independent, progressive idea in the health and medical field as the influence of the US within the country after the liberation expanded. The lives of 10 doctor represent an important symbol of how the Korean health and medical field has been established under the domestic and overseas political conditions, 'colonization-liberation-military occupation of the Powers,' and one part of the concrete history.

Keywords: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History, Republic of Korea

서론

한국의 근대 보건의료체계의 성립과 발전과정에서 구한말, 일제강점기, 미군정 및 한국전쟁은 각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중에서도 특별히 미군정기는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가형성의 중요한 시기였고 국가의 정책기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1], 1946년 미군정의 중앙행정기구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도 거의 같은 틀을 유지하는 것이 그러한 예 중의 하나이다[2]. 이것은 보건의료 부문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미 구

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선교사들을 통해 미국 등 서양의학의 영향을 받고 있었지만 미군정기는 한국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걸쳐 본격적으로 미국의 영향을 받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미군정은 총독부의 기구와 기능을 그대로 두고 서서히 고치는 방향을 선택하여, 보건위생 부문은 일제 식민지 시기와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관장하였다가 1945년 9월 24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정령(미군정법령) 제1호 '위생국 설치에 관한 건'에 따라 종전의 경무국 위생과를 폐지하고 위생국으로 승격하여 설치하였다.¹⁾ 따라서 종전에 경찰국 위생과에서 담당하던 공중보건(public

Correspondence to: Young-Jeon Shin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222 Wangsimni-ro, Seongdong-gu, Seoul 133-791, Korea

Tel: +82-2-2220-0668, Fax: +82-2-2293-0660, E-mail: yshin@hanyang.ac.kr

Received: February 28, 2013 / Accepted after revision: April 10, 2013

© Korean Academy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health)과 복지에 관한 업무를 위생국이 담당하게 되었고 보건위생 사업을 강화하였다[3,4]. 그 후 1945년 10월 27일에는 미군정 법령 제18호 '보건후생국 설립(위생국 폐지)'에 따라 보건후생국으로 개편하고, 1946년 3월 29일 미군정 법령 제64호 '조선정부 각 부서의 명칭'에 따라 '보건후생국'을 '보건후생부'로 조직을 개편하였다.²⁾ 이 당시 보건후생부는 보건 관련 11개국과 후생 관련 4개국 즉, 15국 47과에 이르는 거대한 조직이었으며 어느 부서보다도 규모나 예산이 막대하였다[5,6]. 미군정 시작 직후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보건후생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한 것은 당시 미군정 당국이 남한의 위생문제를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었음을 보여준다.³⁾

전국적인 보건후생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해방 직후 전문적인 보건인력은 매우 부족하였다[6]. 이에 미군정청은 보건의료 분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는데 이 중 하나가 “한국의 공중위생과 국민건강 치리(治理)를 위하여 위생국 설치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당시 남한의 의사들을 선발하여 미국으로 연수를 보내는 것이었다.⁴⁾ 1945년 11월 미군정청은 록펠러재단의 후원을 받아 최제창(崔濟昌), 백행인(白行寅), 윤유선(尹裕善), 최창순(崔昌順), 주인호(朱仁鎬), 김동철(金東喆), 한범석(韓凡錫), 황용운(黃龍雲), 송형래(宋亨來), 최명룡(崔命龍) 등 10인의 의사를 미국의 3개 보건대학원(존스홉킨스대학교, 미시간대학교, 하버드대학교)에 보내 연수시켰다.

이들 10인의 의사는 해방 이후 미군정에 의해 이루어진 최초의 보건의료 부문 미국 연수생이었다. 미국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이들은 미군정기뿐만 아니라 이후 한국 정부에서 사회부장관, 의정국장 등 고위 공무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 보건의료체계를 새로이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 10인의 의사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또 미국 연수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들이 한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리고 이들의 미국 연수, 생애와 활동이 한국 보건의료행정사에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에 답해 보는 것은 해방 이후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구축과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하지만 10명의 생애와 활동 전반을 다루는 것은 매우 방대한 작업이므로, 시기적으로는 1945년 해방 직후 해외연수 시작시점부터, 미군정, 대한민국정부수립, 한국전쟁 이후부터 10인 의사 중 한 사람인 윤유선이 최종적으로 보건행정 관련 직책을 마치는 1969년까지를 다루었다. 내용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중심으로 다루었는데, 첫째는 이들의 미국 연수 진행과정을 살피고, 이러한 연수과정이 한국 보건행정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

다. 두 번째는 실제로 이들이 귀국 후 한국 보건행정 분야에서의 어떠한 구체적인 역할을 하였는지 살펴본다. 통상적으로 정부 관료로서의 활동은 특정인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며, 따라서 이들의 공식적 활동내용은 대부분 이들의 자서전, 관련 대중매체 보도내용, 가족 및 관련자의 인터뷰를 통해 재구성하였다.

미국 연수프로그램의 경과

1. 미국 연수프로그램의 성격과 연수자 선발

국민보(國民報) 1945년 11월 7일자에는 10인의 의사의 선발과 연수에 관하여 당시 정황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는데, 기사는 이 연수가 미군정청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목적은 미군정 위생국 설치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미국의 공중위생제도를 수학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점령군 군정부는 한국의 공중위생과 국민건강 치리(治理)를 위하여 위생국 설치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를 시작하는데, 우선 한국 안에 있는 의학박사 10명을 선택하여 미국의 공중위생제도를 수학하게 할 차로 미국으로 보내는 바, 그 일행이 본월 2일 오후 7시에 헝헝필드 비행장에서 몇 시간 교차하는 기회를 타서 연합위원회 회원과 기타 모모 제씨가 출영(出迎)하였고, 그 일행 중에 한 분인 최명룡 박사는 연합위원회에 와서 우리나라 현 시정형에 관하여 한 시간 동안 간단한 연설이 있었다.

그 수학단원의 이름은 하버드대학으로 가는 분이 황용운·송형래·최명룡 3씨이고, 존스홉킨스로 가는 분이 최제창·백행인·한범석 3씨이고, 미시간대학으로 가는 분이 최창순·윤유선·주인호·김동철 4씨이다.⁵⁾

미국 연수프로그램의 추진과 선발과정에 대해 10인의 의사 중 1명이며 그 당시 위생국에 근무하고 있었던 Choi [3]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해방 직후 우연한 기회로 미군정 보건행정 책임자인 글렌 맥도널드(Glen McDonald) 미군 중령과 함께 일을 하던 중 어느 날 맥도널드에게 미국에 가서 보건학을 공부하고 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당시 과로로 지쳐있기도 했지만, 일을 하다 보니 보건행정 역시 특수한 부문이라 기초지식이

1) 內務部治安局. 美軍政法令集 1945-1948. 1956. pp.5.

2) 內務部治安局. 美軍政法令集 1945-1948. 1956. pp.17.

3) 실제로 1946년 중국 광둥, 상해지역으로부터 오는 귀국동포를 실은 미국 선박 voyage 36호로 수입된 콜레라(당시 중국 유행)가 남한 각처에 만연해 15,644명의 환자와 10,181명의 사망자를 내는 등 전염병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었다[7].

4) 국민보. 한국 의사 수학단 일행. 1945년 11월 7일자.

5) 최제창은 최창순, 주인호, 김동철, 한범석이 미시간대학교 보건대학원으로 연수를 떠났고 최제창, 백행인, 윤유선이 존스홉킨스대학교 보건대학원으로 연수를 떠났다고 기술하고 있으나[3], 국민보에서는 이와 다르게 윤유선은 미시간대학으로, 한범석은 존스홉킨스대학으로 간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자 맥도널드는 반색을 했다. 그는 이왕이면 영어가 가능한 사람들을 모아 함께 가라고 조언을 해 주었다. 내가 다섯 명을 데리고 가겠다고 했더니, 국방부에 요청하면 대개 반으로 줄이니 열 명을 청원하라는 귀띐까지 해주었다. 그 다음날 아침 워싱턴의 미국 국방부 예방의학과장에게 전보로 이것을 청원했다. 전보를 친지 3일 만에 열 명의 한국인 의사 전원을 11월 중순까지 워싱턴에 도착하게 하라는 답장이 왔다. 그리고 유학생의 모든 학비는 록펠러재단이 지불한다는 것이다. …… 이때는 이용설 박사가 아직 보건의후생부에 들어오기 전이어서 학생모집에 관한 모든 문제를 나 혼자 처리해야 했다. …… 나는 신문가자들을 불러 광고를 부탁했다. 방송을 통해서도 광고를 했는데, 그 방송을 듣고 이복에 있던 의사가 내려오기도 했다.⁶⁾

최제창이 이 과정에 자신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음을 강조하는데 반해, 역시 10인의 의사 중 한 사람이었던 Choo [8]는 “군정청 보건후생부 고문이었던 이용설 박사의 알선으로 다른 아홉 명 의사와 같이 도미했다.”고 말해 이용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⁷⁾ 연수비용은 록펠러재단이 담당하였는데, 록펠러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1945년 196명에게 펠로우십을 지원했는데, 국제보건 부문 13명 중 한국인 10명에게 공중보건행정, 2명의 그리스인에게 기생충학, 1명의 덴마크인에게 화학 펠로우십을 주었다고 적고 있다[9].

이들의 선발에서는 영어능력이 중요하게 평가되었으며,⁸⁾ 이들에게는 연수 후에 2년 공직이라는 조건이 붙었다.⁹⁾ Choi [3]의 기록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연수생들의 공부 주제까지 정해 놓고 있었는데, 최제창-보건행정, 윤유선-성병, 최창순-결핵 등이었다. 이는 미국 국방부 계획이 매우 구체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미국 연수 출발과 귀국

미국으로의 출발 후, 미국 대학원에 도착한 과정에 대하여 장학생 중 한 명이었던 백행인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10].

8. 15 해방이 되고 두 달 전후하여 부랴부랴 아직도 전화가 완전히 가시기도 전에 미군용 수송 비행편으로 잿더미의

도쿄를 직접 보고 그 길이 오키나와, 구암, 존스톤, 하와이를 거쳐 미대륙을 횡단하여 워싱턴 수도로 연장되고, 곧 대학도 시인 볼티모어에 여장을 풀게 되었다.

Choo [8]는 그의 책 ‘전염병 탐색기(傳染病 探索記)’에서 출발일을 9월 21일로 적고 있는데[8], 연수생마다 출발일이 달랐을 수도 있으나 Choi [3]는 ‘한미의학사(韓美醫學史)’에서 “우리는 미군 비행기로 김포비행장을 떠났는데, 의사 열 명이 가지고 떠나는 짐은 참으로 보잘 것 없었다. …… 1945년 11월 중순 워싱턴에 도착하니 미국 국방부는 우리가 며칠간 묵을 호텔도 준비해 놓았고 우리가 갈 학교도 배치해 놓은 상태였다.”라고 기술하고 있고,¹⁰⁾ ‘국민보’ 1945년 11월 7일자도 이들의 출발이 11월 2일이라고 보도하고 있어,¹¹⁾ 이들의 출발은 1945년 11월 초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백행인의 회고에 따르면 미군용 비행기 편으로 도쿄-오키나와-괌-존스톤-하와이-워싱턴-볼티모어에 이르는 긴 여행 끝에 존스홉킨스대학에 도착하였다. 도착 직후 최제창, 윤유선, 백행인은 로버트 차란 사람의 주선으로 필라델피아에서 서재필을 만나기도 하였다[10].

이들 중 8명은 1년간 공부를 마치고 1946년 12월 19일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최제창은 이들이 “미국으로 떠날 때와는 달리 다들 웃도 잘 입었고, 가지고 오는 짐 부피도 커져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3]. 백행인과 윤유선의 귀국은 이들보다 늦어졌는데, 당시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뒤떠러진 백행인씨(自行寅)는 전염병에 관하여 윤유선(尹裕善)은 성병을” 짚스합킨스 “대학에서 각각 계속하여 연구 중으로 명춘 고국으로 도라오리라”고 보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각각의 연수 영역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¹²⁾

하바드大學: 黃龍雲(傳染病), 崔命龍(工*衛生), 宋亨來(學校衛生)
 미쉬간大學: 崔昌順(結核), 韓凡錫(統計學), 朱仁鎭(**及中毒), 金東喆(小兒衛生)
 짚스합킨스大學: 崔濟昌(衛生行政)

귀국이 늦어졌던 백행인은 자서전에서 자신이 1947년 3월 서울로 돌아왔다고 밝히고 있다[10,11].

6) 1945년 10월 9일자 매일신보에 따르면 군정청은 1945년 10월 9일 위생국에 조선인 9명을 임명하였는데, 그 중 한 명이 최제창이며, 그 외에 10인의 의사 중 황용운, 윤유선, 김동철이 임명되었다(매일신보. 미국에 파견될 의사 10인 선정. 1945년 10월 19일자).
 7) 주인호는 “군정청 보건후생부 고문이었던 이용설 박사의 알선으로 다른 아홉 명 의사와 같이 도미했다.”고 기술하고 있다[8].
 8) 권이혁 구술. 2009년 4월 17일.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지역사회연구소 보관자료.
 9) 매일신보. 미국에 파견될 의사 10인 선정. 1945년 10월 19일자; 윤현구 구술(윤유선의 장녀). 2009년 7월 22일.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지역사회연구소 보관자료.
 10) 주인호의 책에 실려 있는 사진에는 “초대 미국 유학생으로 워싱턴에서 교포들의 환영을 받다(1945. 9. 20)”로 표시되어 있고 대한보건협회 40년사에 실린 같은 사진에는 이 사진 일자를 1945년 9월 25일로 적고 있다. 박재빈 교수(하와이대학교)는 11월 도착이 맞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늦게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정부가 깊게 개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6,8] (박재빈 구술, 2008년 12월 3일. 한양의대 지역사회연구소 보관자료).
 11) 국민보, 자유신문 기사, 최제창의 『한미의학사』의 내용, 박재빈 교수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11월 2일이 더 정확한 출발 날짜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출발한 날이 10월 30일이든 11월 2일이든 미국 보건대학원은 이미 학기를 시작한 후였다(국민보. 한국 의사 수하단 일행. 1945년 11월 7일자; 자유신문. 미국 유학 의사 10명. 금일출발. 1945년 10월 30일자; Choi, 1996; 박재빈 구술, 2008년 12월 3일. 한양의대 지역사회연구소 보관자료).
 12) 동아일보. 각 大學서 醫學을 研究. 1946년 12월 22일자.

10인 의사의 개인사 및 활동: 보건행정 부문 활동을 중심으로

자서전을 확인할 수 있는 최제창, 백행인, 주인호의 기록이 상세한 반면 나머지 다른 이들의 기록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지만 이들 열 명 의사의 주요 개인사 및 귀국 전후 활동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인사

연수 의사 중 출생년이 확인되는 사람은 8명인데, 이 중 주인호(1919년 출생)가 가장 나이가 적고 최명룡(1906년 출생)이 가장 나이가 많았으며 연수 출발 시 이들 나이는 각각 35세에서 40세 사이였다. 또한 이들은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학교를 마치고 대부분 이미 임상경험을 가진 이들이었다. 한범석¹³⁾은 당시 경성 출신이고, 최제창과 송형래는 개성에서 태어났으며, 백행인은 평안북도 의주, 윤유선¹⁴⁾은 충청남도 아산, 최창순¹⁵⁾은 서울 용산, 주인호는 함경남도 함주, 황용운은 평양, 최명룡은 경기도 이천 출신으로 전국 각지의 출신들이 섞여 있다. 주인호는 김동철이 상해 출신이라고 밝히고 있다⁸⁾.

졸업의과대학은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출신이 4명(백행인, 윤유선, 최창순, 최명룡), 경성의학전문학교 출신이 2명(주인호, 송형래), 경성제대 출신이 1명(한범석)이었다.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나온 이는 최제창(버지니아 주립대학교 의과대학), 황용운(피츠버그 대학교 의과대학)이었으며 최제창은 그의 저서에서 김동철이 상해 세인트존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였다고 적고 있다³⁾. 이들은 모두 의과대학을 나오고 대부분 임상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30-40대의 사람들이었다. 더욱이 해외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3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영어실력이 있는 고학력 중견인력을 선발한 이유는 미국 연수가 가능하고 당시 부족한 보건의료행정인력의 조속한 보충을 위하여 1년간의 단기 연수 후에 바로 보건의료행정에 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미국 연수 이전 활동

최제창은 1935년 5월 버지니아 주립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뉴올리언스 국립 해상병원과 주립병원에서 2년간 임상수련을 받았으며¹³⁾, 이 시기 ‘임균에 의한 임상적 고찰’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¹⁶⁾ 그는 그의 저서에서 미국 유학 당시 서재필을 만나 유대 관계를 가졌으며 구영숙, 최규남 등과도 교류하였다고 적고 있다³⁾.¹⁷⁾ 귀국 후 1936년 가을 세브란스 의전에 재직하며 오궁선 박사를 도와 미국과 같은 인턴제도를 한국에 적용하기 위한 일들을 맡아 진행하였다(1936-1939년) [3]. 그는 1939년 세브란스 의전을 사임하고 고향 개성에 있는 개성 남성병원 내과 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¹⁸⁾ 남성병원에서 그는 농촌 순회 진료반을 설치하고 영아부를 조직하여 취학 전 아동의 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예방의학을 실시하였다³⁾.¹⁹⁾

백행인은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졸업 후, 1939년 4월부터 세브란스부속병원 내과 조수와 미생물학교실 연구원으로 재직하였고, 1941년 11월 만주국 페스트 방역응수동원에 파견되었으며 1941년 4월부터 2년간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의로 일하였다¹⁰⁾. 1942년에는 중화민국 경성총영사관 촉탁으로 임명되기도 하였고¹¹⁾,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의 오한영, 광인성 교수와 함께 오내과를 운영하며 주요 소화기질환에 대하여 강의하기도 하였다.²⁰⁾ 1944년부터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내과 강사로 일하던 중 광복을 맞이하였다.

윤유선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를 졸업(1935년) 후, 도쿄제국 대학에서 의학박사(1943년)를 취득하였다¹⁴⁾.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를 졸업 후, 1935년 4월부터 1936년 3월까지 세브란스 내과 부수, 1936년 4월부터 1941년 3월까지 세브란스 피부과 및 비뇨기과 의 조수, 1941년 4월부터 1945년 3월까지 세브란스 피부과 및 비뇨기과에서 강사로 재직하였다. 해방 직전에는 하얼빈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²¹⁾

최창순은 1929년 세브란스의전 졸업 후 개성 송도도립병원에서 공의로 일했으며 ‘남성병원’에서도 일하다 1935년 5월 개성 ‘집자의

13) 한범석의 아버지인 한익교(韓翼敎)는 일제강점기에 중추원 주임관 대우 참의를 지냈다. 한성은행 이사(1920년), 대정친목회 평의원(1921년), 국민총력조선연맹 평의원(1941년) 등의 활동을 하다가 중추원 주임관 대우 참의로 임명되어 해방을 맞았다¹²⁾.

14) 윤유선은 윤치명의 외아들로 제4대 대한민국 대통령인 윤보선, 서울대 총장을 지낸 윤일선과 사촌지간이며, 윤치호의 오손조카이다. 결혼은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인 서상일의 딸인 서병주와 하였다.

15) 최창순의 부인 김운순(金溫順)은 서울 출신으로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부설 간호학교 출신으로 문교부 고등교육국 간호교육 과장(1948년), 보건부 의정국 간호과장, 보건부의 정국 간호사업과장(技正)을 역임하였다. 또한 1948년 大韓國防婦人團 창립 부단장, 1949년 대한간호협회 부회장, 1952년 제2대 대한간호협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간호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서울신문, 大韓國防婦人團 발족, 1948년 11월 30일자).

16) 매일신보, 杏林界의 五 巨星-半島醫院 崔濟創博士, 1940년 11월 1일자.

17) 구영숙은 미국 예모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로 정부수립 후, 초대 보건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18) 남성병원은 미국 남감리회가 개성에 세운 선교병원이다.

19) 또한 1940년 11월 1일자 매일신보에 따르면 개성에서 성결교회당(육정 본통[旭町 本通] 소재)을 매입하여 ‘반도의원(半島醫院)’ 개설을 진행했다(매일신보, 1940). 또한 최창순 차남 최열은 최제창이 ‘고려병원’에 근무하였다고 하였다. 고려병원은 조선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 제1회 졸업생인 이만규가 개성에 개설한 병원이다(최열, 2010).

20) 이에 대해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홈페이지를 참조하였다(2010년 10월 9일 확인). http://medicine.yonsei.ac.kr/class_subject/clinic_class/inter/intro_class/shg_class/shg_info/

21) 윤현구 구술(윤유선의 장녀). 2009년 7월 22일. 한양의학대 지역사회연구소 보관자료.

원(十字醫院)을 개업하였다.²²⁾ ‘남성병원’은 최제창이 근무하던 병원으로 이 시기 이미 최제창과는 알고 지내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개업으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개성 ‘호수돈여고’와 ‘송도중학교’의 교의로 봉사하였다.²³⁾

주인호는 1942년 경성의학전문학을 졸업하였으며, 졸업 후 경성의학전문학교 약리학교실 조교로 일하다 광복을 맞았다[13]. 한범석은 1942년 경성제국대학교 의학부를 졸업 후 생리학교실 연구생으로 있었으며, 서울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강사를 하기도 하였다.²⁴⁾ 1938년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송형래는 졸업 후 해방 전까지 활동을 확인할 수 없었다.

황용운은 피츠버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수학한 뒤(1933-1937년), 루이지애나주 툴레인 의과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았다(1939년) [3]. 미국 연수 전에는 대구 동산기독병원 내과 의사로 일하였으며 경찰병원을 병설하여 일본 경찰을 치료하기도 하였고 1941년 적성인물로 지목되어 4개월간 감금되기도 하였다. 최명룡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를 졸업(1934년)하였고, 일본 카나자와(金澤)의대에서 학위를 받았으며[15],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등에서 근무하다 연수 전까지 평양 및 인천에서 개업하였다[3]. 상해 출신 김동철은 대학 졸업 이후 연수 전까지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3. 미국 연수 직후 미군정과 관련 활동

미국 연수에는 연수 후에 2년 공직이라는 조건이 붙어있었던 것으로 보이며,²⁵⁾ 따라서 귀국 직후 이들은 미군정하에서 활동하게 된다. 하지만 최제창은 연수 이전부터 미군정과 관계를 맺고 활동하였다. 그의 자서전에 따르면 1945년 9월 개성의 관할권에 대하여 문의하기 위해 미군정에 방문하였다가 그 당시 미군정 보건행정 책임자였던 육군 대령 글렌 맥도널드를 만났으며 그는 최제창에게 함께 일해 줄 것을 부탁하여, 1945년 미군정 설립 당시 보건후생부 차관을 역임하게 되었다.²⁶⁾ 그는 일본이 총독부 경찰국 위생과장으로 부터 의료기관을 인계받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후 한국 의사의 미국에서의 수학을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10인의 의사에 대한 모집 또한 담당하였다[3]. 귀국 후 제1공화국 직전까지 보건후생부 보건차관(1945-1948년)을 연수 전에 이어서 역임하였고[3],²⁷⁾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사임하였다.

백행인은 미국 연수 후 귀국하여 1947년 4월부터 남조선과도정부 보건후생부 방역예방과장으로 일하기 시작하였으며 약 2년 2개

월간 재직하였고, 1947년 여름 하지 군정장관의 특명으로 중국계 류기환동포 인도와 방역책임을 수행하기도 하였다[11]. 윤유선은 연수 후 귀국하여 미군정 보건후생부 성병과장(1947년)을 맡았고 최창순은 귀국 직후 미군정청 보건후생부 의무관을 지냈다[16]. 주인호는 연수 후 1947년 4월부터 1950년 8월까지 미군정청 보건후생부 연구국장을 지냈으며 김동철과 황용운은 유학 이전부터 미군정청 위생국에서 근무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매일신보에도 게재되었다[8,17].²⁸⁾ 또한 최명룡은 귀국 후 보건후생부 위생시설과에서 근무하였다(1947-1948년) [15]. 한범석은 공보처 내 통계국 인구조사과에서 활동했으며, 황용운의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이후 활동을 볼 때 연수의 조건을 지키기 위해 미군정의 보건행정 관련 업무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4.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활동

1) 보건의료행정 분야 활동

10인의 의사들 중 최제창을 제외하면 이들이 본격적으로 보건행정 분야에서 활동한 시기는 연수에서 돌아온 1946년 말 미군정 시기부터 대한민국 정부수립, 한국전쟁, 전후 복구기를 거쳐 1960년대 말까지이다. 교육활동과 국제보건활동까지를 포함하면 그 활동 기간은 더욱 늘어난다. 이 시기는 다른 행정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보건행정 분야에서도 많은 제도들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정비되는 시기였다. 이 시기 동안 이들의 보건의료행정 분야의 활동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최제창은 미군정의 종료와 함께 보건후생부 보건차관을 사직한다. 1949년 대한의학협회 상임이사 시절, 새 정부가 사회부 안에 보건국을 두는 등 보건행정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하여 보건부의 독립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기도 하였다. 1949년 2월 15일 보건부 독립 의뢰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며 그에 따라 보건부가 사회부에서 독립되었다. 최제창은 초대 보건부 장관으로 내정된 구영숙이 보건행정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보건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 최제창은 ‘Public Health in Korea’라는 영문 책자를 만들어 국내의 보건기관, 의학교,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등에 발송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49년 말경에도 확실한 거처를 정하지 못하였던 그는 미국에 가서 1년간 더 병원 수련을 받은 후 귀국하기로 결심하고 미국으로 건너갔다[3].

22) 최혜숙 구술(최창순 장녀). 2010년 10월 15일.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지역사회연구소 보관자료.

23) 최창순 만사위 신국주 선생의 기록자료(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지역사회연구소 보관자료).

24) 한성수(한범석의 장남)의 편지. 2011년 11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지역사회연구소 보관자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동문회. 회원명부. 서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문회;1996.

25) Unidentified. 매일신보, 미국에 파견될 의사 10인 선정. 1945년 10월 19일자; 윤현구 구술(윤유선의 장녀). 2009년 7월 22일.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지역사회연구소 보관자료.

26) 최제창의 책 “韓美醫學史”의 약력에 따르면 1945년 8월부터 1948년까지 보건후생부 차관을 지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1945년 9월 24일 이전에는 경무국 위생과였으며, 10월 27일 이후에야 보건후생국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그 후 1946년 3월 29일 보건후생부로 조직, 개편되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1945년 10월 27일 이전에는 경무국 위생과에 근무한 것이고 그 이후 보건후생국 차관으로 재임 중 미국 연수를 간 것이다. 보건후생부 차관으로 역임한 것은 1946년 3월 29일 이후이며, 제1공화국 직전까지 재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13,16]

27) 동아일보. 崔濟昌氏 渡美保健連絡官으로. 1949년 10월 28일자.

28) 매일신보. 군정청 衛生局과 警務局에 조선인 임명 발표. 1945년 10월 9일자.

백행인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사회부에서 보건부가 독립되어 나온 1949년 7월부터는 대한민국 보건부 방역국 예방과장으로 재직하였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피난전시의료요원으로 활동하면서, 전시 및 전후에 보건부 방역국장을 역임하였다. 그 후 1950년부터 1956년까지 보건부와 보건사회부의 방역국직속기감(국장)으로 일하였다. 그 시기에 전염병예방령이 공포(1952년)되고 국립위생시험소가 개소(1952년)되었다[11].

윤유선은 1951년 세계결핵협회의 한국대표직을 맡았으며, 의정국 만성병과 기정 및 중앙성병원 기정직을 역임했다(1952년).²⁹⁾ 1953년 보건행정 시찰차 하와이에 파견되었으며, 보건부의사국장 서리(1954년), 보건부의사국장(1955년), 보건사회부 중앙방역연구소장(1956년), WHO 서태평양지역 한국대표(1957년) 및 보건사회부 의정국장(1958-1960년)을 역임하였다. 특별히 그는 사회부와 보건부가 보건사회부로 통합되는 1955년에 의사국장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1960년 전문과목표방 허가 자격시험을 실시하여 이른바 전문의제도가 자리를 잡는 데 의정국장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³⁰⁾ 1958년 국방부-의과대학장 연석회의에서 각 대학병원에서 인턴 수련을 받는 전공의의 일부에게 5년간 군입대를 연기한다는 협약을 한 소위 Kim's plan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1914년 임의로 시작한 인턴제도나 일본식 교실원 혹은 의국원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던 전공의제도를 현재와 같은 본격적인 인턴-레지던트제도로 전환한 것이었다[18]. 이러한 과정 역시 윤유선이 의정국장이던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윤유선은 정부 차원에서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에 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한 최초의 모임으로 알려져 있는 '목요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9].

1959년 10월부터 보건사회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에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회'(이른바 '목요회')를 열기 시작하였다. 이 목요회를 출발로 해서 당시 보건사회부에서는 의료보험은 의정국에서, 실업 및 노동재해보험은 노동국에서, 공공부조는 사회국에서 각기 연구를 시작하였다[19].

이후 윤유선은 국립중앙보건원(현 국립보건연구원) 제2대 원장을 역임(1959년)하였고 1963년 국립보건원, 국립방역연구소, 국립화학연구소, 국립생약시험소의 4개의 보건 관련 연구기관을 통합한 통합국립보건원 초대 원장(1963-1964년)으로 활동했다[20]. 제4대(1964년 2월-1965년 5월), 제7대(1966년 12월-1969년 5월) 국립의료원(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1953년에는 대한결

핵협회 창립 발기인으로서 이사직을 맡아 활동하였으며, 1969년에는 대한나협회 회장을 맡아 활동하였다.

최창순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자, 서울시 보건위생국장에 취임하였다(1948년) [16]. 당시 수도 서울은 해외동포, 이북 피난민이 몰려와 주택난, 식량과 식수 등의 물자부족 속에서 전염병이 유행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 시기에 서울시의 위생국장으로서의 후생보건행정의 공로가 인정되어 1949년 1월에 제2대 사회부 차관으로 임명되어 4년간 활동하였고(1949-1952년), 1952년 1월에는 제4대 사회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으며, 1952년 7월 한국과 유엔 통일사령부 합동경제위원회 구호분위 위원장을 맡았다. 차관과 장관으로 재임하던 시기는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당시 정부 예산으로는 사회복지와 보건후생에 대한 재원이 부족하였다. 이에 최창순은 미국과 미군, WHO 등의 협력을 받아내 외국 원조물자를 많이 받는데 진력하였다. 1952년 10월 9일, 사회부 장관을 사임한 후, 1953년 11월부터 1955년 10월까지 대한결핵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였다[21].

한범석은 1948년 공보처 내 통계국 인구조사과장으로 일하였고, 1949년 보건부 의무과장으로 일하였다.³¹⁾ 한국전쟁 중에는 유엔민사원조처(UN Civil Assistance Command)의 보건책임자로 활동하였다.

송형래는 한국전쟁 전후에 의정국장을 지냈으며 1952년 보건부 의정국 이사관을 역임하였다. 그가 의정국장에 근무하는 동안 한국 보건의료정책의 중요한 일종의 하나인 국민의료법이 공포되었고, 1952년 1월 15일 대통령령 제588호에 의해 현재와 형태가 유사한 의사국가고시가 새롭게 실시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송형래가 의정국장으로 있을 때 이루어진 일이었다. 1957년에 대한공중보건협회 사무총장으로 추대되어 1959년 9월까지 활동하였다[22]. 최명룡은 1949년에 전남 보건후생국장으로 활동하였다[15].

또한 이들은 한국 보건의료인력의 교육, 훈련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1953년 한미재단 지원하에 보건관계 교육기관으로서 '공중보건원(School of Public Health, Korea)' (초대원장 한범석)에서는 1회 20명씩(육·해·공군 군의관 각 2명씩 포함) 3개월간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건의료 관련 인력들의 교육을 진행하였는데, 강사는 국내 석학과 미8군 장교 중 전문가였다. 여기에서 교육받은 이들 중에는 김명호(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이근태(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백영한(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정희영(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경향신문, 1994). 윤유선이 원장을 맡았던 국립보건원(1959년), 통합국립보건원(1963-1964년)은 당시 국내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의사, 간호사, 보건요원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

29)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952년 직원록. Available from: <http://db.history.go.kr/front/srchservice/srcFrameSet.jsp?searchWord=CNIKCNIGCHIG&searchWordList=CNIKCNIGCHIG&searchSetID=-1&searchType=1&mainSearchType=2&query=GGIOGGKIGGKPGGJAGGIOCNIKCNIGCHIGGGIPGGIP&searchClassName=&oid=&url=&method=&lang=&code=&searchword=&return=>.

30) 윤유선은 1963년에 예방의학 전문의 1호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대한예방의학회 50주년 기념도록 편찬위원회, 1998).

31) 경향신문. 6.26 직후 공중보건원 교육을 받고. 1949년 8월 4일자.

을 지속적으로 맡아 진행하였다. 또한 윤유선은 ‘공무원교육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다(1962년).³²⁾

요약하면 이들은 사회부 장관 및 차관(최창순)으로 임명되어 활약했을 뿐만 아니라 의정(윤유선, 송형래), 방역(백행인, 윤유선), 통계, 지방보건행정(최명룡) 분야의 고위급 행정 전문가로 활동했다. 특별히 의정 분야는 의료인력, 장비, 시설, 전달체계 등과 같은 보건의료제도와 관련 법령을 다루는 분야로 해방 후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23].³³⁾ 또한 이들은 공중보건원, 국립보건원, 보건대학원 및 의과대학에서 의사, 전문의, 간호사, 보건요원 등 다양한 보건의료인력들에 대한 교육, 훈련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이들은 주요 보건의료기관장으로도 활동하였으며, 결핵협회나 나협회 설립·운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들이 보건행정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한 1945년부터 1960년대까지 국민보건법 공포(1951년), 전문의제도 도입(1951년), 의료인 국가시험(1952년), 공중위생원 창립(1953년), 전염병예방법(1954년), 보건소법(1956년), 마약법(1957년) 제정, 통합국립보건원 출범(1963년)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많은 보건의료제도가 수립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이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관련 부문 행정 전문가로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2) 국제보건 분야 활동

보건의료행정 분야에서의 활동 중에는 국제보건 분야의 활동도 포함된다. 이들은 미군정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미국 등 다른 나라와의 보건의료협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 중 다수가 한국전쟁 당시 국제연합민사원조사령부(UN Civil Assistance Command)³⁴⁾ 관련 활동에 참여했으며(백행인, 한법석), 최제창도 1952년 7월 한국과 유엔 통일사령부 합동경제위원회 구호본부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기도 하였다.

특히 10인의 의사 중 다수가 WHO 총회 등 국제보건 분야의 행사를 자주 참석하고 국제협력 분야의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해외 원조 수혜국인 당시 상황에도 불구하고 빈곤국 지원 국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최제창은 1946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서 보건행정에 대하여 수학 중인 1946년 6월 뉴욕 UN WHO 창립총회 때 한국대표로 참가하였다[3]. 백행인도 방역국 직속기감(국장)으로 활동하던 중인 1953-1956년 동안 6-9차 WHO 총회 한국대표로 참여하였다[4]. 윤유선은 1951년 세계결핵협회의 한국대표직을 맡았으며(1951년), 1953년 보건행정 시찰차 하와이

에 파견되기도 하였다. 또한 1957년에는 WHO 서태평양지역 한국대표를 역임하였다(1957년). 최창순도 사회부차관 당시 재직 중 한국대표로 1949년 WHO 이탈리아 로마 총회에 파견 다녀왔다.³⁵⁾ 사회부장관 퇴임 후에도 1954년 9월 26일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5차 국제항결핵연맹 총회에 파견되어 다녀오기도 하였다[21]. 한법석은 이후 1960년 초반 나이지리아 이바단(Ibadan)대학에서 WHO 고문관으로 활동하였으며[8], 그 외 WHO와 지방보건소에 근무하였다. 송형래는 퇴직 후, 종로에서 송안과를 개업하여 환자를 진료하였으나 1964년 4월 초빙의사로 우간다로 가서 포트 포탈(Fort Portal)시 병원 등에서 27개월 일하였다.³⁶⁾

국제보건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은 주인호였는데 그는 1950-1955년에는 육군 소령으로 군 복무를 한 후, 육군 소령으로 예편하였으며[13], 군 복무 시기에 유엔 사령부의 보건자문관으로 활동하였다. 특별히 그는 1969년부터 WHO에 15년 이상 근무하였는데 당시 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 3년은 서부아프리카에 유행하였던 황열병 방역에, 7년은 대륙의 천연두 박멸사업에 주력하였으며, 1979년에 귀국하여 1년을 개업하다 다시 4년을 동부아프리카에 만연하였던 수면병 환자 구료사업을 담당하였다[13].

1972년부터는 콩고 인민공화국 브레저빌(Brazzaville)시의 WHO 방역국장 행정직에서 우간다대학교의 역학 교수로 근무하며 동시에, 동남부아프리카지역의 천연두 퇴치사업을 맡아서 진행하기도 하였다[8]. 또한 WHO 아프리카지부 전염병 부분 수석 고문관이었으며 그 공로로 영국 왕실 종신 학술위원직을 받았다. 이렇게 이들은 해방 후 한국 보건의료 분야가 국제사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3) 보건행정 관련 학계활동

최제창은 1948년에는 ‘조선보건학회’를 창립하여 부회장직을 역임하였고[24], 1947-1950년에 ‘대한의학협회’ 상임이사를 역임하였다. 백행인은 1956년 9월부터 교육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 예방의학 교수로 재직하였으며(1956-1981년), 1981년 은퇴하였다. 재직하는 동안 이화여자대학교 대학 보건소장(1960년), 학장 서리(1965년), 의과대학 제5대 학장(1968-1972년)을 역임하였다[11]. 학회활동으로는 1953년에 대한예방의학회 이사가 되었고, 1965년에는 제13대 대한예방의학회 학회장을

32) 동아일보. 168명을 위촉 공무원교육준비위원. 1962년 7월 16일자.

33) 1956년 국민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당시 윤유선이 의정국장을 맡고 있었다(동아일보. 봉사심이 부족. 1956년 1월 14일자). 또한 송형래는 구체적인 의료법규의 개정방향을 기고하기도 하였다[23].

34) 1950년 9월 창설 1955년까지 활동하였는데, 대한민국 정부와 구호정책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연락부서를 두었고, 각 도에는 구호물자의 배분을 감독하고 보건의료와 농사지도를 담당하는 인력들로 구성된 야전팀을 두었다[3].

35) 동아일보. 崔濟昌氏 渡美 保健連絡官으로. 1949년 10월 28일자.

36) 동아일보. 검은大陸, 原色の 나라 우간다 通信(上). 1964년 6월 5일.

역임하였다. 또한 심상환, 김연주, 김용성 등과 함께 대한공중보건협회 상임이사(1957년)로 활동하기도 하였다[22]. 윤유선은 공직을 마친 후, 한양대학교 초대 의과대학장(1969년 7월-1971년 12월)을 지냈으며 예방의학교실 초대 주임교수를 역임하였다(1969년 7월-1974년 7월). 1975년 12월 은퇴 후 미국으로 이주하였다.³⁷⁾ 주인호는 1955년 4월 서울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조교수로 부임하였고, 1958년부터 3년간 미국 해군의학 연구소원으로 근무하였고, 귀국 후, 1959년에는 수도의과대학 예방의학 부교수, 1960년에는 우석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워싱턴대학교 의과대학 객원교수를 1965년부터 2년간 역임하였다[13]. 또한 1963년 수도의과대학 병설 의학기술초급대학을 설립하여 초대학장을 맡았으며, 1967-1968년 대한예방의학회장을 역임하였고[24], 동시에 대한공중보건협회 이사(1967년), 부회장(1968-1970년)을 역임하였다[22]. 한범석은 1952년부터 ‘보건과 의학’ 편집장을 역임하였다. 공중보건원(School of Public Health, Korea) 초대원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공중보건원을 미국의 보건대학원체제로 운영하고 싶었으나 문교부 산하가 아닌 보사부 산하의 기관이었던 까닭에 보건대학원으로는 발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그러던 중 1956년 3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에 설치되어 있던 예방의학 전공이 예방의학 및 공중보건학 전공으로 확장되었고 이때 공중보건원에서 근무하던 한범석 원장이 교수로 영입되었다[6,25]. 1956년 12월 서울대 의과대학은 명주원 학장이 재직 중이었는데,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미네소타 프로젝트였으며 한범석은 이 일을 담당하여 진행하였으나 1957-1958년 사이에 인구학을 연구하기 위하여 미국 프린스턴(Princeton)대학으로 출국하였으며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이후 권이혁이 담당하였다(Compilation Committee of Korea Public Health Association, 1996). 송형래는 1957년에 권이혁, 양재모, 주인호 등과 함께 위생학 교과서를 집필하였는데, 이는 해방 이후 한국 최초의 위생학 교과서이다[24].

이들은 공직생활을 마치고 다시 학계로 돌아가 공중보건학과 예방의학 분야에서 관련 연구작업을 진행하였고, 예방의학회, 공중보건학회 등을 이끌었으며 보건행정, 공중보건, 예방의학 등 분야에서 후학을 양성하였다.

4) 기타 활동

최제창은 1950년 미국으로 건너간 후에도 워싱턴지역의 한인의 사회를 조직하여 초대 회장을 역임하고(1958-1962년, 1974-1975년), 재미한인사회 회장(1974-1976년), 한미시민연맹총재(1978-1980년), 워싱턴한인 YMCA 이사장(1980년), 워싱턴 한인노인회

회장(1981-1988년), 미국 적십자 알렉산드리아지부 이사(1991년) 및 ‘워싱턴한인사’ 편찬위원 등을 역임하며, 재미 한인계에 주요 일을 담당하였다[3]. 최창순은 1956년 ‘대한소년화랑단’ 단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황용운은 대구시의사협회 18대 회장(1996년)을 역임했으며, 한범석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에서 대학생들에게 주역을 가르치는 등의 활동을 하며 말년을 보냈고, 이 중 최창순, 주인호, 황용운 등은 은퇴 후 개업의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사망일이 확인되는 이들 중 최창순은 폐렴치료 중 54세의 나이로 일찍 사망하였고(1959년), 황용운은 2000년 사망하였다. 이들 중 윤유선(1987년), 주인호(2000년), 한범석(2001년), 최제창(2004년)은 미국에서 생을 마쳤다.

결론: 한국 보건의로 행정사에서 가지는 의미를 중심으로

해방 직후 바로 미군정이 시작되었고 보건행정 영역에서도 변화가 왔다. 일제 때 경무국 산하의 위생과에서 담당했던 보건행정이 미국식 보건후생부체제로 전환된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국내에는 보건행정 분야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미군정은 록펠러재단의 지원을 받아 1945년 11월 10명의 의사를 선발하여 미국 유명 대학 보건대학원으로 연수를 보냈다. 이들의 미국 연수를 시작으로 이후 많은 의료인들의 미국 유학이 이루어졌다.³⁸⁾ 그리고 이들은 한국 보건의로행정과 학계, 보건의료현장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군정 시기 10인 의사의 미국 연수의 주요 특징은 첫째, 미군정과 미국 국방부에 의하여 계획되어지고 록펠러재단의 재정 협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미국 내 보건대학원에서 연수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식민지로부터 벗어난 국가들의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있어 정부와 대학, 민간 재단 간에 매우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둘째, 선발된 10명은 모두 의사였다. 이는 이후 한국에서 보건학, 보건대학원 개설과 운영 등에서 초창기에 의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예방의학과 보건학이 매우 유사한 성격을 보이는 원인으로도 작용하였다. 셋째, 보건의로 분야 중 특히 보건행정을 중심으로 연수가 이루어졌다. 한국전쟁 이후 이루어진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매우 광범위한 영역의 재교육 프로젝트였다면 해방 직후 이루어진 10인의 의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보건행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이는 일제하 보건의로체계를 복구, 전환하는 데 요긴하게 활용되었다. 넷째,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보건의로 분야에서도 미국 유학경력과 영어구사능력

37) 윤현구 구술(윤유선의 장녀). 2009년 7월 22일. 한양의대 지역사회연구소 보관자료.

38) 1948년 현재 보건의로 분야 미국 유학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26].

*교육사절단(1946. 4) 구영숙; *국제보건회의(1946. 6) 이용설; *록펠러재단 유학생 2차(1947. 7) 최영태, 이장원, 이병하; *걸스카우트대표(1946. 11) 한소제; *국제암연구회의 윤일선, 고병간; *UN보건협회(제1차 1947. 10) 광인성, 김은창; *UN보건협회(제2차 1948. 10) 이완영, 방숙; *GARIOA장학금(1949. 3) 조동수, 김장성, 황주봉, 손원태, 문병기, 임길재, 최선학, 이성수; *자비유학생 송진우, 이규택, 현봉학, 정사영, 김희규, 고원영, 고난경, 윤해병, 신애용, 윤병수, 임명순, 정해순, 박영애.

이 미군정과 연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미군정기 한국 통치에서 기독교, 영어구술능력을 가진 이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27]. 10명 중 4명이 기독교 계통의 세브란스 의전 출신이었고, 최제창, 황용운, 김동철 등은 해외 유학파로 영어에 능숙하였다. 또한 주인호 역시 영어에 능숙하여 통역관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미국 유학생 출신 최제창이 이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섯째, 10인의 의사 중 상당수(최제창, 송형래, 윤유선, 주인호, 한범석)가 결국 미국을 그들 삶의 최종 귀향지로 삼았다. 이는 그 자녀들은 대부분 미국 유학을 보내 그곳에 정착토록 한 까닭도 있지만 그들의 일생에서 미국이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군정 초기에는 일제의 총독부 행정기구를 그대로 이용하고 또한 일제식민지 시기에 각 부에서 활동하던 관리들이 유입되었는데,³⁹⁾ 10인의 의사 대부분은 일제식민지 시기에 관직에 있지 않았으며, 일부는 일제 시기의 활동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들 중 최제창, 백행인, 윤유선, 최창순, 주인호, 황용운 등은 해방 당시 학교에 있거나 개원한 상태여서, 미군정기 보건행정에서 이들의 참여는 일제식민지 시기 관료의 재임용이라는 성격보다는 미군정에 의한 새로운 인물의 선택과 훈련이라는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특징과 관련하여 미군정 시기 10인 의사의 미국 연수가 한국 보건의료 행정사에서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해방 이후 한국 보건의료 영역이 '일본식 공중위생'에서 '미국식 공중보건'으로 가는 상징적이면서도 실제적인 한 경로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 한 단적인 예가 '공중보건'이라는 단어의 사용인데, 최제창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광복 후, 미군정은 행정부 조직에 조선총독부의 기구와 기능을 그대로 두고 일을 해가면서 서서히 고치는 방향을 선택했다. 경무청 위생과를 위생국으로 승격시켜 운영하려던 이용설과 필자는 위생국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할 사업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한 끝에 영어로 'public health'라는 명칭을 채택했다. 그리고 이를 '보건'이라고 부르기로 했던 것이다. 그 이후 행정기구 재편 시 위생국이 보건후생국으로 개칭되었다. ... 그리고 1945년 9월 중순에 미국에 유학 갈 의사 열 명을 모집하면서 보건학이란 명칭을 사용했으니, 이때부터 보건이라는 명칭을 실질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열 명의 한국 의사가 광복 후 처음으로 집단적으로 미국 의과대학 보건대학원에서 조국을 위하여 공부를 하고

돌아오자, 보건이라는 용어조차 없던 한국에 보건학이 창시되었다[3].

이와 비슷한 언급을 1956년 출판된 '大韓民國建國十年誌'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 책에서는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 의학도 십여 명을 선발하여 미국에서도 저명한 하버드, 존스홉킨스, 미시건 같은 일류 의학교에 유학시켜서 그 당시까지는 우리들의 귀에 생소한 공중보건학을 연구케 하였다[16].

박재빈 역시 한범석과 주인호 두 사람이 주로 '보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인터뷰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⁴⁰⁾

... 이상과 같이 50년 후에 보건부에 남은 분은 송형래, 백행인, 윤유선 세 분뿐이지만,⁴¹⁾ 한범석, 주인호 두 분은 밖에서 보건계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으며, 해방 후에도 '공중보건'을 학계에서는 일본식으로 위생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이 두 분이 주로 보건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 생각한다. ... 행정계에서는 보건이라는 말을 썼으나 학계에서는 이때까지 위생이라는 용어를 고집하였다.

주인호도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8].

... 원래 공중보건이란 말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아마 1947년 3월부터인가 기억난다. 초대 미국 보건대학원 유학생이었던, 최제창, 최창순, 송형래, 한범석, 백행인, 윤유선, 나, 몇 사람이 명동 마돈나다방에 모여 public health를 무어라고 번역하느냐에 대해 토론이 벌어졌던 것이 생각난다.

중국에서는 공공위생, 일본 내에서도 역시 공중위생이라 부르고 있으나, 새로 탄생하려는 대한민국에서 예 일본이나 중국에서 부르는 진부한 낱말보다 보건이란 새 낱말로 통일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낙착되었다. ... 서울대학교 위생학교수 심상환 박사는 그대로 공중위생이란 말을 주장했었고 전해 들었다. 당시 배일사상에 물들어 있었던 초대 유학생들이 정부보건행정을 점령하다시피 했던 시대라 관청에서 일본어 사용을 받아들일 도리가 없었다.

39) 중앙 신문. 군정장관실, 미군정의 현재와 장래에 대한 제반 문제에 관해 발표. 1945년 11월 17일, 18일자.

40) 박재빈 구술. 2008년 12월 3일. 한양의대 지역사회연구소 보관자료.

41) 실제로는 최창순도 같은 시기 사회부 차관과 장관을 역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보건’이란 단어는 1900년 초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하고 1930년대에 흔히 사용되었다. 또한 한국에서 근대 보건의료의 탄생은 이미 19세기 말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보건의료사계의 일반적 의견인 경우가 많다[28]. 따라서 열 명의 의사의 미국 연수 이후 국내에 “보건학이 창시되었다”라는 최제창의 말이나 다른 이들의 주장도 과장된 것이다. 하지만 해방 이후 미군정을 거치면서 한국사회에서는 ‘위생’의 의미는 축소되고, 소위 미국식 ‘보건’이란 단어가 더 일반적인 용어로 자리 잡게 되는 과정에서 그들의 역할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식민지 의료체계가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미국식 체계로 개편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다른 한 가지 사례는 1913년부터 시행해왔던 의사검정고시제도 즉, 한지의업면허를 1946년 폐지하고 일제시대에 발행된 의사면허증을 모두 반납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의사면허등록을 갱신하여 조선주둔군정청 보건국장 명으로 새로운 면허증을 발행하였다. 백행인도 1950년에 의사면허를 갱신하기도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11].

이들의 보건의료행정 분야에서의 역할은 미군정 이후에도 계속 되어 장관, 차관, 의정국장, 방역과장 등을 보건의료행정체계에서 중요한 보직을 역임하면서 의사국가고시, 전문의제도, 사회보험제도, 방역체계, 보건의료통계체계, 의료보장제도에 이르기까지 현재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기본 틀을 만드는데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별히 한국전쟁 이후 한국 보건의료 부문에 미국의 영향력을 크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중 하나가 ‘미네소타 프로젝트’이다. 이왕준은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특히 의과대학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냈는데,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수입된 미국식 현대의학은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의학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으며” 무엇보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현대의학으로 훈련된 의료인력이 양산될 수 있는 교육적, 인적 기틀을 만든”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29].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렇게 한국의 의학교육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실무를 맡았던 사람이 10인의 의사 중 한 명인 한범석이었다.

또한 이들 중 백행인, 윤유선, 주인호 등은 의과대학/보건대학의 교수, 학장 등을 역임하고 공중보건학회, 예방의학회 회장직 등을 역임 하면서 의학/보건학 교육과 학술영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는 미군정 초기 열 명의 의사의 미국 연수가 이후 한국의 보건의료행정체계뿐만 아니라 보건과 의학교육 영역에서도 미국식으로 전환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 미국 연수프로젝트와 이들 10인의 의사들의 역할은 극히 부분적인 것이었다. 미군정동안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주도했던 미군들과 이용설 등 당시 공

식적, 비공식적으로 미군정과 이후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구축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들 말고도 많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 10인 의사들의 뒤를 이어 미국 연수를 다녀와 한국 보건의료행정과 학문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한 많은 전문가들이 또한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10인의 의사는 이러한 과정의 매우 초기 단계에 참여하였으며, 해방, 미군정, 정부수립으로 이어지는 보건행정체계 구축과정에서 상징적인 한 경로를 보여준다.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 구축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하는데, 그 하나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군정기 10인 한국 의사의 미국 연수는 미국식 공중보건, 보건의료체계 및 의학교육체계를 한국에 빠르게 이식하는데 기여한 성공한 프로젝트였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 입장에서 보면 빠른 시간 안에 상대적으로 더 발달한 미국식 보건의료체계를 받아들이는 중요한 통로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존재한다. 종래 경찰행정 차원에서 다루던 보건위생문제를 독립적 차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는 등, 일제시대 준군사적 제도로부터 근대적 보건의료체제로 변화되어간 경과적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주장이다[32]. 그러나 다른 주장도 존재하는데, 미군정을 거치면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에 미국의 영향이 커지는 과정이 아무런 논란이나 갈등 없이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특별히 미군정이 주도한 개혁과정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 한의학에 대한 배려는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지 못했으며 기존의 체계와의 충돌로 갈등과 실패를 겪기도 하였다[26]. 더욱이 이후 한국전쟁은 남한사회에서 반공이데올로기와 미국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켰으며 이는 한국 보건의료체계도 예외가 아니었다.⁴²⁾

해방 직후 미군정을 거쳐 대한민국 수립 이후 보건의료체계의 구축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역사연구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 10인의 활동은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한국 보건행정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방이전의 보건의료정책과 제도, 미군정 책임자들의 의사결정과 관련 정책, 남북한을 포괄하는 주요 보건행정 활동가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개별 보건의료제도의 변화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들 10인의 미국 연수와 이후 보건행정 부문에서의 활동은 ‘식민지배-해방-강대국에 의한 군정’이라는 국내외 정치적 상황 변화 속에서 한국 보건의료체계와 제도의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자 구체적인 역사의 일단을 보여준다.

42) 보건의료체계를 둘러싼 다양한 주장과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최용석과 이용설 간에 이루어진 논쟁인데, 좌익계의 최용석은 ‘국립병원과 협동조합병원, 개인개업의’를 3축으로 하는 의료국영론을 주장한 반면[31], 군정 측과 보수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던 보건후생부장 이용설은 최용석 등의 의료국영론을 시기상조로 규정하고, ‘의료시설과 전문 과목 담당의사의 부족’ 등 의료계의 문제를 지적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종합병원을 많이 설립할 것, 환자들이 주로 종합병원을 이용할 것을 권하고 있으며,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해 선진국인 ‘미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저자 강조)임을 주장하였다[30]. 결국 미군정은 이용설의 손을 들어주었다.

감사의 글

자료 확보에 도움을 주신 하은희 교수(이화여자대학교), 김재식 명예교수(경북대학교), 여인석 교수(연세대학교), 신좌섭 교수(서울대학교),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박재빈 교수(하와이대학교), 권이혁 교수(서울대학교), 고 윤유선 박사의 장녀 윤현구 여사, 최창순 전 사회부 장관의 차남 최열 선생, 장녀 최혜숙 여사와 사위 신국주 교수(동국대학교), 한범석 선생의 장남 한성수(미국 거주), 김동철 선생의 정보를 얻는데 도움을 주신 김광재(국사편찬위원회), 김희원 선생께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1. Cho KA. Politic and administration system of the rule of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Seoul: Aram; 2003.
2. Jeong YU, Kim SJ, You KH, Lee KS. A study of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and the rule of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Seoul: Baeksanseodang; 2002.
3. Choi JC. Medical history of Korean and USA. Seoul: Youngnam Cardinal; 1996.
4. Suwonsi Medical Association. History of Suwonsi Medical Association. Suwon: Suwonsi Medical Association; 2000.
5. Han MW. A study for development of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system in Korea [master's thesis]. Seoul: Hannam University; 1986.
6. Compilation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istory of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Hanrimwon; 1996.
7. Jeon JH. A chronological table of Korean modern medical culture. Seoul: Medical Press; 1994.
8. Choo IH. Investigation of infectious diseases. Seoul: Medical Press; 1989.
9. The Rockefeller Foundation. The Rockefeller Foundation: annual report 1945. New York: The Rockefeller Foundation; 2003.
10. Baek HI. On the wane. [place unknown: publisher unknown]; 1974.
11. Baek HI. Still being full of life on my sixtieth birthday. [place unknown: publisher unknown]; 1975.
12. Institute for Research in Collaborationist Activities. Dictionary for pro-Japan collaboration. Seoul: Institute for Research in Collaborationist Activities; 2009.
13. Korean Institute of Medicine. Medical pioneers of Korea, part II. Seoul: Korean Institute of Medicine; 2009.
14. Kee CD. History of Korean modern medical education. Seoul: Academy; 1995.
15. Kang JH. The ten-year document in the his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Seoul: Geongukginyeomsaeophoe; 1049.
16. Kang JH. The personnel docu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eoul: Naeohongbosa; 1956.
17. Korean Society of Pharmacology. Fifty-year history of the Korean Society of Pharmacology. Gwangj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ess; 1997.
18. Kim KS, Kim JQ. Demand-supply of medical specialist and stance of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J Korean Hosp Assoc 2004;(3-4):38-47.
19. Son JG. Social security and social development. Seoul: Jipmoondang; 1983.
20. Lee JS, Kim OJ. Development of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Korea. Korean J Med Hist 2000;9(1):54-62.
21. Korean National Tuberculosis Association. Thirty-year history of Korean National Tuberculosis Association history. Seoul: Korean National Tuberculosis Association; 1983.
22. Compilation Committee of Korea Public Health Association. Forty-year history of Public Health Association. Seoul: Daedong Munhwasa; 1997.
23. Song HR. Proposal for the Medical Service Act after general election. J Korean Acad Med Sci 1960;3(6):18-21.
24. The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commemorative work book for semicentennial. Seoul: The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1996.
25.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Histor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part I.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8.
26. Shin JS.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toward public health and medicine in occupied South Korea. Korean J Med Hist 2000;9(2):212-232.
27. Kim SJ. The character of Central Administrative Official during the period of USMG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J Korean Mod Contemp Hist 1996;5:240-270.
28. Shin DW. Modern medical history in Korea. Seoul: Hanul; 1997.
29. Lee WJ. The influence of Minnesota project on the Korean medical education [dissertatio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6.
30. Lee YS. On the policy and administration for public health and welfare policy. Chosuneuhaksinbo 1947;2:17.
31. Choi ES. The fundamental mission for present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Chosuneuhaksinbo 1974;2:17-20.
32. Park IS. A study on Public Health and Medicare Administration under the rule of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South Korea. J Public Welf Admin 1994;15(2):197-350.